



정혜엘리사벳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http://www.sackcc.net>

주임신부: 김한모. 바오로 916-207-4806
 본당부제: 김병준. 바오로 217-352-2487
 본당부제: 김상돈. 도미닉 916-580-8519
 사목회장: 이주순. 율리오 530-906-0262
 연령회장: 고원석. 바오로 916-813-4440

ST. JEONG-HAE ELIZABETH KOREAN CATHOLIC CHURCH 9354 Kiefer Blvd. Sacramento, CA 95826
 사무실: 916-368-9204 Fax: 916-368-8304

오늘의 말씀	제1독서	예레미아서 33:14-16	제2독서	테살1서 3:12-4:2	복음	루카 21:25-28, 34-36
--------	------	----------------	------	---------------	----	--------------------

◎ 말씀 < 대림초에 불을 붙이며 >

오늘 제1독서는 유다 왕궁의 경비대 울안에 갇혀 있는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내린 하느님 말씀을 전합니다. “ 나는 이스라엘 집안과 유다 집안에게 한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예레 33,14). 독서 앞 부분에는 “기쁜 소리와 즐거운 소리, 신랑신부의 소리와 ‘만군의 주님을 찬송하여라. 그분의 자애는 영원하시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예레 33,11)라는 신탁이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에서 가장 이상적인 구원의 모습을 말씀 하시다니! 독서의 말씀은 다투어 읽을 때에도 있을 것 같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한 치의 희망도 보이지 않는 처지로 내몰리는 상황에서 그들을 포기하지도, 그들에게 절망하지도 않으시는 하느님. 더욱이 가져본 적도 없었던 꿈같은 행복까지 약속하시다니! 이런 불행을 초래한 장본인이 바로 그들 인데도 말입니다. 예레미야서와 루카 복음의 정황들, 그리고 그러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간절히 기다렸던 그 무엇을 생각하면서 오늘 제2독서를 묵상하면 이런 약속들이 실제로 이루어진 듯 합니다. 바오로 사도와 초대교회 신자들은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한치의 의심도 없이 굳게 믿었지요. 그런 확신과 흔들림없는 신앙속에서 그들은

하루하루를 ‘그날이 바로 오늘’ 인 것처럼 살았습니다. 오늘 복음은 주님의 재림 못지않게 우리 개개인의 죽음도 준비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 때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나에게는 시간이 넉넉하다’ 는 생각입니다. 우리 모두 내일을 전혀 예측할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이며 내일은 은총이요, 자비의 시간이고 하느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생명을 망각할 정도로 찰나적인 세상사에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재림과 죽음의 시간은 무섭고 두려운 시간이 되겠지요. 인생은 기다림속에서 저물어 간다고 누군가 말하였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기다림은 막연하고 모호한 것이 아니라 기쁨과 희망 속에서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는 구체적이고 희망찬 기다림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어쩌면 일년중에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때인지도 모를, 대림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기다림은 희생과 긴 인내를 요구한다는 점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구상 시인은 고백합니다. 그리고 권고합니다. “삶은 인내로구나. 삶은 긴 인내로구나. 삶은 길고 긴 인내로구나!”

일 자	전 려 력	미사시간	우리들 정성(지난주)	
12월4일(화)	대림 제1주간 화요일	오후7시30분	교 무 금 주일헌금	\$ 2,075.00 \$ 1,082.00
12월5일(수)	대림 제2주간 수요일	오전7시30분	성소후원 사회복지	\$ 5.00 \$ 130.00
12월6일(목)	대림 제3주간 목요일	오후7시30분	성 물 방 원캠페인	\$ 67.00 \$ 200.00
12월7일(금)	성 암브로시오 주교 학자 기념일	구역미사 (9구역)	기타수입 사제관건축	\$ 718.32 \$ 0.00
12월8일(토)	원죄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	오후7시30분	합 계	\$ 4,277.32
12월9일(일)	대림 제2주일	오전 9시 오전 11시	미사참례자	아동:4성인:187명
교무금 봉헌자	박성호. 문홍식. 민명규(10-12월) 최영진(1-12월) 임복순(7월) 신영후. 안기창. 박선경(11월) 남필레(12월)			

◎신앙생활(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집.동네의 샘입니다)

자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요한 8,32) 예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에게 영감과 설렘을 줍니다. 여러분 모두 참된 자유를 원하시지요?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가치인 자유는 이성 과 의지에 바탕을 둔, 행하거나 행하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자, 이것을 하거나 또는 저것을 하는 능력이며, 이처럼 스스로 숙고해서 행동하는 능력입니다.(「가톨릭교회교리서」 1731항)

자유롭게 존재하고 자유롭게 행동하는 것은 인간 이 본래 지닌 권리입니다.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 을 경우에만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온전하게 질 수 있습니다. 자유로운 인간만이 사랑으로 하느님께 응답할 수 있습니다. 오직 자유 안에서 만 인간은 사회적이고 인격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자유는 정치적·사회적· 재정적·법적·문화적 상황으로 인해 항상 제한 받고 있습니다. 한 인간에게서 자유를 앗아 가거나 그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불의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고, 그 인격의 성장을 방해합니다.

인간의 자유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자유는 우리가 의지와 이성을 활용해 참으로 선한 것을 행하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자유가 최종 선이신 하느님께 결정적으로 정착하기까지는 선과 악 사이의 선택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완덕을 향해 성장 할 수도 있고 퇴보하여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유는 인간 행위의 고유한 특징으로, 칭찬이나 비난 혹은 공로나 허물의 근거가 됩니다.

작가 버나드 쇼는 바로 이런 이유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유를 두려워한다고 했습니다. 자유는 하느님이 마련해 두신 세상의 방식, 곧 자연법과 창조 질서에 방향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양심을 통해서 선과 악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양심은 인간 안에 있는 진리의 목소리, 모든 사람의 마음에 쓰여 있는(로마 2,15 참조) 자연법입니다. 우리는 양심 안에서 이성을 통해 모든 시대에 선하게 여겨진 가치들을 인식합니다. 속이는 것, 빼앗는 것, 죽이는 것은 결코 옳은 것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양심이 혼미 해지 기도 합니다. 자유도 항상 선만을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종종 이기적이거나 위선적인 것을 좋아 하기도 합니다. 이 때문에 양심에 대한 교육을 받아야 하며, 참된 가치에 대해 가르침을 받아야 합니다. 궁극적으로는 자유로 참된 선을 완성할 수 있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해방이 필요 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세요.

- ◎주님 은총으로 용기와 치유받기를 청합니다.
윤안나/원정은.카타리나/백정심.막달레나 전기례.베레나/김나미.로사/김옥륜.세실리아 추소연.세실리아/엄안드레아/김숙자.수산나 서향자.글라라/김초지.마리아/황순이.마리아 최이주.베아따/이규청.제노비아/엄모니카 신용경.그레고리오/배미성.오틀리아/이강덕시몬 박모란.글라라/김광진.요한/원헤리나.헬레나
- ◎기도부탁하실때 구역장을 통해서 해주세요

◎오늘의 미사지향(미사신청;박울리아.916990-6531/박프란치스코.909-573-5322)◎

구분	지 향	봉 헌 자	구분	지 향	봉 헌 자
연	한오임.소피아의 영혼	김미숙.모니카	생	이영호.안셀모의 영육간의 건강	김어거스틴.헬레나
			생	장호길.요한비안네, 장로사로이의 영육간의 건강	이영숙.데레사

간 장 종 지

◎대림◎

이제는 깨어 있을 시간, 두 눈으로 당신을 다시 보며
이제는 유심히 들을 시간, 나무 앞 적시는 천상의 빗소리
아, 이제는 기다릴 시간, 당신의 발소리를 겸손하게
들이 하나되고 모두가 되는, 이 찬란한 예정의 시간들

마종기 노렌조·시인,의사/ 최창원 니콜라오·화가



(광고) 본당의 새신;본당은 친교의 집.기도하는 집.동네의 샘입니다.

주보제작;박봉준.프란치스코 살레시오(909- 573-5322) E-Mail:bongjun5322@gmail.com

<p>Samurai Sushi 12251 Folsom Blvd. Rancho Cordova,CA95742 신영후(토마스) (916) 353-1112 samuraisushisac.com</p>	<p>Bradshaw Optometry 3557 Bradshaw Rd. #2E Sacramento, CA 95827 김기상(바오로) (916)361-2020 (916)361-0433; fax</p>	<p>1.2.3 Auto Body정비 11357 Pyrites Way Suite B1, Rancho Cordova CA 95670 이호영(호영베드로) (916)366-0123</p>	<p>2019년 2월 18일 출발 요르단+이스라엘 성지순례  SHINSEGAE TRAVEL ☎ 510-688-0155</p>
<p>FARMERS 배정순 종합보험 사업/상해/자동차/집/ 건강/생명보험/연금 9545 Folsom Blvd # 1 Sacramento,CA 95827 (916)362-3300 (916)475-3770;cell</p>	<p>에어컨 수리 Air Conditioner Service & Repair 배용환(율리아노) (916)548-3278 (916)362-3300</p>	<p>SNOW WHITE DENTAL 6416 Tupelo Dr.Cirtus Heights,CA 95621 장원석(바오로) (916)729-1441 (916)230-6768; 한국어</p>	<p>클라라 가정양로원 (Clara Care Home) 4665 Freeway Cir. Sacramento, CA 95841 김재열(스테파노) 김옥기(클라라) (530)771-7715 204-8878</p>
<p>서은미 부동산 RealtyOneGroup 2335 American River Dr. Ste.100 Sacramento, CA 95825 서은미(안나) (916)600-1936</p>	<p>Hair Story Salon 9723 Folsom Blvd. #B Sacramento,CA 95827 헤어디자이너 정린(클라라) (916)342-7072</p>	<p>메리서 부동산 · 용자 · 재정서비스 · 주택/상가/상업/부동산관리 및 자문 · 주택용자/SBA/Commercial/Land · 은퇴-자산-재무설계/재산관리 서주연(마리아) (916)271-3671 · maryseo@gmail.com SACRAMENTO . DUBLIN .LA K-TOWN</p>	
<p>JIMMY KIM GOLF SCHOOL ~Sunrise Golf Course~ 6412 Sunrise Blvd. Citrus Heights CA 95610 Jimmy Kim(안토니오) (916)605-6974</p>	<p>최병엽공인회계사 Byungyeub Choi CPA & Associates Inc. 9521Folsom Blvd.suit P Sacramento,CA 95827 (Butterfield Plaza#P) 최병엽(바오로) (916)363-2345</p>	<p>장의사 W.F.Gormley&Sons Funeral Home Family Owned Since 1897 Preneed Services Available (916)443-6513 www.gormleyandsons.com 모든 장례예절 성실히 봉사</p>	

